

竹窟 吳澧의 「圃隱集」校訂에 대하여

On the Correction of a Jookyu Ow-Un's *Poemunjip*

김 순 희 (Kim, Soon Hee) *

◁ 목 차 ▷

- | | |
|------------------|------------------|
| 1. 緒 言 | 3.2 「圃隱集」의 重刊 沿革 |
| 2. 吳澧의 學問과 關聯 圖書 | 4. 吳澧의 校訂 內容 |
| 2.1 吳澧의 學問 | 4.1 당시의 背景 |
| 2.2 吳澧과 關聯 圖書 | 4.2 校訂의 內容 |
| 3. 「圃隱集」의 刊行 沿革 | 5. 結 言 |
| 3.1 「圃隱集」의 刊行 背景 | |

< 초 록 >

오운은 조선 중기(中宗 35~光海 9)에 활약한 인물로 이 시기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도서편찬자이다.

오운은 「圃隱集」의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오류를 수정하는데 있어서 치밀하고도 숙련된 솜씨를 보였으며, 체재의 구성이나 배열에 있어서도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편집의 체재, 구체적인 내용의 오자 교정 등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실상을 밝힘으로써 오운이 도서의 지술 및 편찬은 물론 교정에 있어서도 일가견이 있는 인물로서 조선 중기의 주목할 만한 도서 편찬자임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要語 : 吳澧, 圃隱集

< ABSTRACT >

Ow-Un was a remarkable compiler of the middle years of the Chosun Dynasty (A.D. 1540~1617). In correcting the errors of the originals, he was very careful and diligent. He had his own ideas on the rearrangement or reconstruction of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mu.ac.kr)

접수일: 200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sentences. Especially, he concentrated his attention on the system of compiling and correcting of typos in the characters meaning. This article tries to prove he was good at writing and correcting and he was a good compiler of the middle years of the Chosun Dynasty.

Key words : Ow-Un, *Poemunjip*

K C I

1. 緒言

필자는 이전부터 竹牖 吳滂(1540-1617)의 편찬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다. 오운은 조선 중기(中宗 35~光海 9)에 활약한 인물로 이 시기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도서편찬자인 것으로 보인다. 오운은 역사서인 「東史纂要」를 직접 저술·편찬하였으며¹⁾ 私撰邑誌인 「咸州志」의 편찬을 주도하였고,²⁾ 「松齋先生詩集」을 간행하는³⁾ 등 도서에 대한 인식과 애호가 유별난 사람이었다.

오운의 관향은 高敞인데 그의 선조 중에서 현달한 인물은 거의 없고, 조부 彦毅가 전의현감을 지냈다. 언의는 退溪 李滉(1501~1570)과 절친한 관계였으며 이로 인해 퇴계의 숙부인 松齋 李堉(1469~1517)의 따님과 결혼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집안 배경은 오운의 학통과 인맥을 살펴는데 있어 단서를 제공한다. 오운은 19세 되던 해 저명한 학자인 南冥 曹植(1501~1572)에게 수학하였으며, 25세 되던 해에는 이황의 제자가 되었다. 오운이 남명과 퇴계의 문하생이라는 사실은 그의 신분과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오운은 27세 되던 해 10월에 결시문과에 급제하여 공식적으로 환로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 때 西厓 柳成龍(1542~1607), 開巖 金宇宏(1524~1590) 등이 함께 급제하여 평생토록 우의를 간직하게 되었다. 그 뒤로 충주목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53세 되던 해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자 忘憂堂 郭再祐(1552~1617)와 함께 倡義兵을 일으켰다. 임난 후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61세 되던 1600년에 忠佐衛副司果兼五衛將이 되었고 77세 되던 해 靑松府使로 부임하였는데 다음 해인 1617년(光海9, 丁巳) 3월 3일에卒하였다.

오운의 생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유학자이자 관리로서 당시 지식인의 전형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 오운은 「圃隱集」의 교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오류를 수정하는데 있어서 치밀하고도 숙련된 솜씨를 보였으며, 체재의

1) 김순희, “吳滂의 「東史纂要」의 書誌學的 연구,”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12).
 2) 김순희, “吳滂과 「咸州志」,” 『書誌學研究』 제29집(2004. 12).
 3) 「竹牖先生文集」年譜, 45歲條, 「四月刊松齋先生詩集」.

구성이나 배열에 있어서도 확실한 주관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실상을 밝힘으로써 오운이 도서의 저술 및 편찬은 물론 교정에 있어서도 일가견이 있는 인물로서 조선 중기의 주목할 만한 도서 편찬자임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吳澣의 學問과 關聯 圖書

2.1 吳澣의 學問

오운의 일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조선조 중기에 활약한 전형적인 선비계층의 인물이다. 선비라 함은 유학의 가르침을 신봉하고 그것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인물을 말한다. 따라서 오운의 학문은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떠나서 파악할 수 없다.

오운의 학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의 師承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오운은 평생에 2명의 스승에게 수학하였는데, 곧 退溪 李滉(1501 ~1570)과 南冥 曹植(1501 ~1572)이다. 오운이 이황의 문인이 된 것은 나이 25세(명종19, 甲子)인데, 당시 이황이 도산서원에서 가르침을 크게 펼치고 있었다.⁴⁾ 오운이 조식에게 수학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이른 19세(명종13, 戊午)때로서 조식이 山海亭에 있을 때였다.⁵⁾ 이들은 한국 성리학의 태두로서 오운이 이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또한 성리학을 배운 전형적인 유학자임을 알 수 있다.

오운의 학문적 특징을 살펴보면, 朱子學의 尊崇, 역사에 대한 관심, 학문의 실천 의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朱子는 조선의 학자들에 있어서 영원한 사표였으며, 학문의 궁극적 지향점이었다. 오운이 주자를 존경하여 그의 저서를 탐독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오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손수 주자의 「感興詩」20首

4) 위의 책, 25歲條, '是歲拜退溪李先生'.

5) 위의 책, 19歲條, '是歲拜南冥曹先生'.

를 써서 보관하였으며,⁶⁾ 주자의 저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초록하여 上·中·下 3권으로 묶은 「朱子文錄」을 만들기도 하였다.

선생이 주자서에 공을 들인 것이 더욱 돈독하여 늙어서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거의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였다. (주자가) 친구나 문인들과 주고받은 서찰 중에서 퇴계선생이 선별한 것에서부터 봉사, 주차, 잡지, 서, 기 등이 후학들에게 절실하며 소차에는 더욱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손수 골라 상, 중, 하3 책을 만들어 「朱子文錄」이라 이름하고 항상 책상 위에 놓았다.⁷⁾

오운이 주자의 「感興詩」20首를 필사하여 간직한 것이 68세 때이고, 「朱子文錄」을 완성한 것이 72세이니 그가 평생토록 주자학을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이황의 「朱子書節要」가 오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역사에 대한 오운의 관심은 지대했다. 전통사회의 지식인들은 文·史·哲學 하나의 학문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오운의 경우는 특별하다. 오운은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의 연혁과 산천경계 풍습, 인물 등에 대하여 조사·정리한 내용을 「威州志」로 편찬하였다. 특히 임진란을 겪은 이후 오운은 역사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여 임진년과 계사년의 사실을 기록한 「龍蛇亂離錄」을⁸⁾ 찬술했고, 檀君에서 고려말까지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사실만을 가려 편찬한 「東史纂要」를 저술·간행하였다. 이러한 역사 관련 저술의 편찬은 오운이 역사에 대해 관심이 깊었음을 입증한다.

오운은 배운 학문을 실천하였던 인물로서, 임진란을 당하자 忘憂堂 郭再祐와 협력하여 의병을 크게 일으켰다.

6) 위의 책, 68歲條, '三月手書朱子感興詩一帙 藏于家'.

7) 위의 책, 72歲條, '先生於朱子書 用工益篤 老而不倦 殆忘寢食 以爲知舊門人問答書札 有退溪先生所選 至若封事奏劄 及雜著序記之類 竝切於後學 而疏節又見愛君憂國之意 乃手抄成上中下三冊 題曰朱子文錄 常對案上'.

8) 지금은 失傳하여 전하지 않는다.

(곽재우 공이) 지리산에 들어 와서 선생을 방문하자 선생이 의병을 일으키도록 장려하고 일을 같이하기로 약속하였다. 인하여 군수품과 전투마와 가노 중에서 썩썩하고 건강한 자 7, 8 명을 골라 주었으며 또한 같은 동네의 친구들에게 권하여 정예를 내놓게 하였고, 곽공을 추대하여 장군으로 삼아 적을 토벌하는 일을 맡기고 병사를 모집하고 군량을 공급하는 일은 선생이 전담하였다.⁹⁾

이처럼 오운은 유학의 가르침대로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나라를 구하려 헌신한 실천주의자였다. 이것은 그의 역사의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吳滂과 關聯 圖書

오운은 도서에 대한 애호가 대단했던 인물이다. 그의 문집에 언급된 사실을 바탕으로 오운과 관련이 있는 도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2.1 「東史纂要」

오운이 직접 편찬하고 간행한 오운의 대표적인 저술이다. 임진란이 지나고 고향에 머물면서 여러 역사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三韓 이전의 기록은 너무 간략하고, 高麗 이하의 기술은 지나치게 번잡하다는 사실을 알고 역사의 요점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은 三撰三改의 과정을 거쳤는데, 초간본이 완성된 것은 67세 때인 1606년(宣祖 39, 丙午)이고 改撰本 이 완성된 것은 75세인 1614년(光海 6, 甲寅)이었다.¹⁰⁾

2.2.2 「咸州志」

함주는 지금의 경상도 함안군이다. 이곳의 지방관으로 부임한 寒岡 鄭述(1543~

9) 위의 책, 53歲條, ‘入頭流山 歷訪先生 先生獎以學義 約與同事 因給軍需戰馬 與家奴驍健者七八人 且激勵洞里土友 各出精銳 推郭公爲將 委以討賊 而募兵給餉 先生專主之’.

10) 주 1)의 논문 참조.

1620)가 邑誌를 편찬하고자 하여 이 지역의 士族인 朴齊仁, 李僞, 李澐, 吳澐 등의 협조를 구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편찬을 주도하고 이 책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한 것이 오운이었다. 오운이 이 책을 완성한 것은 48세 때인 1588년(宣祖 21, 戊子)이다

2.2.3 「家世志」

임진란 이후 전쟁 중에 망실된 족보를 다시 정리한 것으로 오운이 직접 편찬하였다. 먼저 宗系를 바로 잡아 차례를 도표로 정리하였으며 外孫과 사위까지 기록하되 직계 조상만 기록하고 다른 支派의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을 완성한 것은 나이 74세 되던 해(光海 5, 癸丑) 3월이다.¹¹⁾

2.2.4 「龍蛇亂離錄」

이 책에 오운이 직접 편찬한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전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운은 광재우와 함께 의병활동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상도 招諭使였던 鶴峯 金誠一(1538~1593)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오운의 친구이면서 김성일의 막하에서 활약하던 李魯가 김성일의 행적을 기록한 「金鶴峯龍蛇事蹟」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자신이 찬술한 「龍蛇亂離錄」에 의하여 수정하였는데, 이때가 1600년(宣祖 33, 庚子)이었으니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 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 年譜에 의하면 오운이 「龍蛇亂離錄」을 완성한 것이 임란 직후인 1593년(宣祖 26, 癸巳)이다.

2.2.5 「松齋先生詩集」

오운은 송재 이우의 외증손이고, 또한 이 시집은 이우의 조카인 이황이 元集

11) 위의 책, 卷3, 「家世志序」 참조.

12) 위의 책, 卷3, 「書金鶴峯龍蛇事蹟後」

중에서 선별하여 손수 써서 1권의 책으로 만들어 보관하던 것이었다. 이것을 오운이 충주목사로 재직하던 1584년(宣祖 17, 甲申)에 간행하였다.

2.2.6 「退溪先生年譜」과 「嘯臯集」

1600년(宣祖 33, 庚子) 5월에 이황의 문집이 완성되어 도산서원의 사당에서 祭祀를 지냈는데, 오운은 김백암, 배안촌 등과 이황의 연보를 교정하였다. 「嘯臯集」은 이황의 문인인 朴承任(1517~1586)의 문집인데 이 해 6월 오운이 伊山書院에서 校正하였다. 오운이 동문의 선배인 박승임의 문집을 교정하였다는 것은 오운이 이미 문집의 교정을 전담할 정도로 학식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7 「朱子感興詩」와 「朱子文錄」

이 두 책은 오운이 주자의 저술을 지속적으로 읽다가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 직접 필사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朱子感興詩」에는 퇴계선생이 쓴 序와 跋文이 있다는 기록으로¹³⁾ 보아 오운이 68세에 필사한 것이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오운도 「朱子大全」을 갖고 있었으나 임진란의 와중에 망실하여 친구인 朴灑에게 빌려 보면서 일부를 등사한 것이 「朱子文錄」이다.¹⁴⁾

2.2.8 「圃隱先生文集」

이 책은 본고의 집중 분석대상이므로 논의를 생략한다.

13) 위의 책, 年譜, 68歲條, ‘篇下有退陶先生序與跋.’

14) 위의 책, 卷3, ‘憶在平昔 購得館本朱子大全 讀之未幾 蕩失於兵火 自寓龜城 借閱朴子澄所藏全帙…(中略)…就其中 謄寫若干篇 糅成上中下三冊 常展之案上.’

3. 「圃隱集」의 刊行 沿革

「圃隱集」은 현재까지 12차례¹⁵⁾나 重刊을 거듭하였다. 오운이 교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1607(선조 40, 丁未)에 간행된 제5차 중간본일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圃隱集」의 간행 배경과 重刊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본다.

3.1 「圃隱集」의 刊行 背景

주지하다시피 圃隱 鄭夢周(1337~1392)는 고려말의 충신으로 조선의 개국세력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그런데 정몽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조선 太宗이 즉위 원년에 그의 신원을 회복시켰다.¹⁶⁾ 정치적 상황 때문에 암살했지만 정몽주의 위국충정과 절개는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다. 이로 인해 그의 아들인 宗誠과 宗本도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문집의 간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 정종성이 문집의 편차를 정리하여 처음 완성한 것이 1409(태종 9, 己丑)년이었다. 정종성은 정리를 마친 뒤 정몽주의 門生이었던 卞季良(1369~1430)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선생의 아들 형제가 책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문충공 양촌 권근이 일찍이 손수 이 시를 교정하였는데 다 교정하지 못한 것은 그대에게 부탁하였다. 또 서문을 쓰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 그대는 일찍이 우리 부친에게 배워 문생이 되었으므로 부친을 아는 자가 그대 만한 사람이 없으니 서문을 오직 그대에게 부탁할 따름이다.” 라고 하여 내가 사양할 수 없었다.¹⁷⁾

15) 최근 迎日鄭氏圃隱公派宗約院에서 간행한 「圃隱鄭先生文集(역)」(1985, 大田 回想社)의 「先生文集沿革의 顛末」 참조.

16) 「太宗實錄」卷2, 11월 7일 條에 의하면 權近의 요청으로 정몽주에게 領議政府事를 증직하였다.

17) 卞季良, 「圃隱先生詩藁序」, ‘先生之子 伯仲氏 携是書以來 徵予序 且曰 陽村權文忠公 嘗手校是詩 其未盡校者 囑諸子 又欲爲序而未就 子嘗學於吾先君 而又爲門生 則知先君者無子矣 序惟子是託焉 余不獲辭 永樂己丑 秋八月 甲子 門生 卞季良 謹序’.

변계량이 서문을 쓴 뒤에도 「圃隱集」이 곧바로 간행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1431년(世宗 13, 辛亥)에 世宗이 집현전 부제학 僕循 등에 명하여 「三綱行實圖」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忠臣圖에 정몽주의 얼굴을 그리고 贊을 짓게 했다.¹⁸⁾ 이로 인해 정몽주의 문집이 관심을 끌게 되었고, 1437년(세종 19, 丁巳)에 편집된 문집이 세종에게 進納되었으며, 세종은 이를 보고 權採(1399~1438)에게 명하여 서문을 짓도록 하였다.¹⁹⁾

3.2 「圃隱集」의 重刊 沿革

「圃隱集」은 처음 간행된 이후 지속적인 증보와 개편의 과정을 거쳤다. 정몽주라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도 있었지만 후대의 군주와 학자들이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유례가 드물다. 간단하게나마 「圃隱集」의 연혁을 살펴본다.

「圃隱集」이 처음 간행된 것은 1439년(세종 21, 己未)이다.²⁰⁾ 정중성이 문집의 발문에서 그 동안의 사정을 설명하였다.

나의 先人이 지으신 서문이 많지 않음이 아니지만 스스로 그 뜻에 만족히 여기지 않아서 짓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였다. …(중략)… 지난 正統 정사년 가을 우리 주상전하께서 살펴보시고 감탄하시며 우승지 권채에게 명하여 책머리에 서문을 쓰게 하여 포상하고 장려하는 뜻을 보였다. …(중략)… 이 때 공인을 모아 인쇄하여 오래 전하게 되었다.²¹⁾

- 18) 「世宗實錄」卷54, 13年 11월 11일 條 참조
 朴信, 「圃隱先生詩卷序」, 今我殿下 命集賢殿文臣等 授得古今書傳 所載忠臣 孝子烈女之特異者 圖贊成書目曰 三綱行實以傳萬世 而先生得與於忠臣之列
 正統二年 丁巳三月下澣 門生 前崇政大夫 吏曹判書 修文殿大提學 雲峯朴信謹序.
- 19) 權採, 「圃隱先生詩卷序」, 其子臣宗誠 編集遺藁以進 又命臣序其篇端 正統三年 四月日 權採 奉教序.
- 20) 「圃隱鄭先生文集(역)」(1985, 大田 回想社)의 「先生文集沿革의 顛末」에서 舊本 初刊本의 간행이 1428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誤記이다
- 21) 鄭宗誠, 「圃隱先生詩集跋」, 吾先人所著詩文 不爲不多 然自以不滿其意 旋作旋棄…(中略)…越正統丁巳秋 我主上殿下 徵覽嘉嘆 命右承旨權採 序其卷端以示褒獎之意…(中略)…於是倩工鍍梓 以壽其傳 正統四年己未三月 日 折衝將軍 龍武侍衛司上護軍 兼知兵曹事 男宗誠謹跋 圃隱先生詩集跋.

이로 보면 嫡子 정종성에 의해 문집이 정리된 뒤 30년 만에 初刊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1533년(中宗 28, 癸巳)에 정몽주의 5世孫인 世臣이 新溪(지금의 김제)郡守로 재직할 때 年譜를 붙여 개간한 것(新溪本)이 있다.²²⁾ 이후 2번의 간행사실이 있다.²³⁾ 1584년(宣祖 17, 甲申)에 宣祖가 西厓 柳成龍(1542~1607)에게 편찬의 순서를 바로하고 교정하여 改撰本을 완성하도록 명하여,²⁴⁾ 이것이 익년 7월에 완성되었으나 芸閣에서 간행하지 못하고 永川의 臨臯書院에서 간행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발생한 壬亂으로 인해 永川初刻本이 손실되었다. 이에 임란 직후인 1607년(선조 40, 丁未)에 영천군수인 黃汝一이 임고서원의 여러 선비들과 상의하여 정몽주의 畫像과 手蹟을 摹刻하고 누락된 시문을 보충하여 改刊하였으니 이것이 永川舊刻本이다. 오운이 「圃隱集」의 교정을 시도하면서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 판본이다.

「圃隱集」은 이후에도 1660년(효종 11, 庚子)의 奉化刻本, 1677년(숙종 3, 丁巳)의 永川再刻本, 1719년(숙종 45, 己亥)의 開城再刻本 등 중간을 거듭했다. 1900년(고종 25, 庚子)에는 崧陽本이 간행되었고, 1903년(고종 28, 癸卯)에 玉山齋本이 중간되었으며 최근 1961년과 1984년에도 국역본이 간행되었다.

정리해 보면, 「圃隱集」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존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정몽주가 순절한 開城 지역과 경북 일대에서 주로 중간되었으며 또한 그의 후손들이 중간에 열성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圃隱集」이 조선조에만 10여 차례의 중간을 거듭한 이유는 정몽주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忠節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의 문집을 널리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2) 柳溥, 「圃隱先生詩集新溪開刊跋」, 今我聖上 復獎節義之臣 誕舉錄用之典以激勸萬代之人心 公之玄孫世臣首膺 聰命 倅新溪縣 載念公之性情所發 乃在詩集鳩工壽梓以廣其傳 嘉靖癸巳仲秋下澣 判書 柳溥謹跋.

23) 宣祖 초년에 간행된 開城舊刻本과 宣祖 중년에 鑄字로 인쇄된 校書館本을 말한다.

24) 柳成龍, 「圃隱先生文集跋」, 萬曆甲申秋 主上殿下 命芸閣印先生文集 先命臣校正訛舛且跋 柳成龍奉教謹跋.

4. 吳滂의 校訂 內容

4.1 당시의 배경

오운이 『圃隱集』의 교정을 완성한 것이 1614년(光海 6, 甲寅)으로 永川舊刻本이 완성된지 7년 뒤이다. 이 때 오운의 나이는 75 세였다. 연보에 의하면 이 해 2월 오운은 「退溪先生夫人許氏墓碣銘」을 撰述하였고, 5월에 「東史纂要」를 改撰하여 완성했다. 이러한 사실을 참작할 때 이 시기의 오운은 나이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원숙한 노대가의 경지에 들어서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오운의 안목에 『圃隱集』의 문제점과 오류가 발견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교정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유성룡과 오운의 관계나 임고서원과 오운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도 오운이 교정을 주관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오운과 유성룡은 과거에 동년급제한 이유로 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오운이 1606년(宣祖 39, 丙午)에 「東史纂要」를 완성하자 유성룡이 보고 크게 감탄하며 임금에게 보일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하여 선조에게 진납하자 선조가 이를 보고 ‘유림의 표준으로 삼으라’고 하교한²⁵⁾ 사실이 있다. 臨臯書院은 정몽주를 추모하기 위하여 1553년(明宗 8, 癸丑)에 경북 영천의 임고면에 창건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3에 중건되었다. 이곳에 사원을 설립하여 정몽주를 배향한 이유는 그의 출생지가 영천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오운이 영천에 우거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54세부터이다.²⁶⁾

당시 오운은 퇴계의 제자이며 내외의 관직을 두루 거친 중견 학자로서 임고서원의 행사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몽주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임고서원에서 친구인 유성룡이 어명에 의하여 교정한 『圃

25) 「竹牖先生文集」, 「年譜」 67歲 條, 「東史纂要成 西厓柳公大加贊歎 以爲可達於君 上封一本 上有標準儒林之教」.

26) 「年譜」 54歲 條 참조.

隱集」을 열람하면서 발견된 오류를 오운이 교정하였다는 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다음 기록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게 한다.

포은선생이 계실 당시에 논리가 황실수설하여 저술이 마땅히 많았을 것이나 변경으로 인하여 전해지지 않았는데 다행히 여기의 시문 약간편이 겨우 남아 있어서 후학들이 함께 공손히 외우고 읊어 탄식하는 바이다. 서문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교정한 것이 있으니 다른 집안의 유고와 비교할 수가 없으므로 정밀히 살펴지 아니할 수가 없다. 원컨대 서원의 많은 선비들과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²⁷⁾

오운의 입장은 정몽주의 유고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임금의 명에 의하여 교정이 될 정도의 문집이므로 다른 문집과는 비교할 수 없고, 임고서원의 특별한 의의가 있으므로 정밀하게 교정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2 교정 내용

오운은 「圃隱集」을 교정하면서 크게 편집의 체재, 구체적인 내용의 오자 교정 등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4.2.1 編輯 體裁의 修訂

永川舊刻本²⁸⁾의 체재를 살펴보면 卷首의 차례가 目錄, 遺像, 序文의 순서로 되어 있다. 오운이 문제로 삼은 것은 서문의 배열 순서이다. 權採, 盧守愼(1515~1590), 卞季良, 河崙(1347~1426), 朴信(1362~1444) 등이 쓴 서문의 순서를 변계량, 하륜, 박신, 권채, 노수신의 서문 순서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오운의

27) 「竹牖先生文集」卷4, 「圃隱先生文集誤字校正」, 「圃隱先生在當時 論理橫說豎說 著述應亦多 而變故不傳 幸此詩文若干僅存在 後學所共莊誦而詠歎 序有奉教校正承命 非他家遺稿比 不可不精審 願與書院多士細論」.

28)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5」에 수록된 「圃隱集」이 永川舊刻本 이다. 해제 참조.

생각이다. 이는 타당한 견해로 보인다. 서문을 쓴 인물의 출생년대를 고려하거나 서문을 쓴 연도를 감안해도²⁹⁾ 오운이 제시한 순서가 설득력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변계량은 정몽주의 문인으로서 정종성이 문집을 정리하고 난 뒤 맨 처음 서문을 부탁하였으니 그가 쓴 서문이 권두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문의 제목을 살펴보아도 변계량이 쓴 서문의 제목은 「圃隱先生詩藁序」이지만, 하륜과 박신, 권채의 서문은 「圃隱先生詩卷序」이고 노수신의 서문은 「圃隱先生詩集序」이어서 서문을 쓴 시기가 다름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오운은 서문의 순서를 재정리한 것이다.

맨 처음의 서문은 변계량의 것을 제일로 삼았고, 그다음은 하륜, 다음은 박신, 다음은 권채, 다음은 노수신이다. 합하여 서문이 다섯 개이고 모두 13장이다. 한결 같이 연차를 따라 꾸미고 묶어서 그것을 모아 간행해 앞뒤가 있음을 밝혔고, 충성을 드러내고 업적을 기록한 것이 각각 때가 다르니 서문의 순서를 문란히 할 수 없다.³⁰⁾

오운은 이처럼 年次를 중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先後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문의 순서를 차후에도 문란히 할 수 없다고 단언하여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오운이 도서의 편찬에 있어서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跋文의 배열에 있어서도 같은 생각이었다.

부록 제6장에 손순효가 지은 비각의 글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생원 정거의 발문은 마땅히 권말에 있는 유부의 발문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목은과 여러 현사들의 부록의 뒤에 이어서 써 놓아서 편치 못하다. 만약에 손공의 「구각제영」을 밝혀서 그 사적을 같이 첨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행마다 한 글자씩 내려서 써서 세겨 제현의 글과 섞이게 해서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29) 변계량은 1409, 하륜(불명확), 박신은 1437, 권채는 1438, 노수신은 1585에 각각 서문을 썼다.

30) 「竹牖先生文集」卷4, 「圃隱先生文集誤字校正」, 「首序卞季良爲第一次河崙 次林信 次權採 次盧守愼 合五序總十三張 一從年次而粧束之 以其衰集刊行有先後 顯忠紀績 各異時序次不可紊也」.

사모하여 기록한 범례이다.³¹⁾

「圃隱集」의 부록을 보면 牧隱 李穡이 지은 「書江南紀行詩藁後」와 「圃隱齋記」를 시작으로 陶隱 李崇仁, 遁村 李集, 康好仁, 權近, 權遇, 柳方善 등 여말선초의 명사들이 정몽주의 시문에 대해 쓴 序跋이나 서로 주고받은 酬唱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뒤이어 상대적으로 이름없는 鄭瑠의 발문이 실려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柳溥(?~1544)가 쓴 跋文 아래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 오운의 주장이다. 이와 연관 있는 사항을 하나 더 살펴본다.

부록 제 9장에 있는 포은묘갈음기는 당연히 연보의 끝 빈 장에다 새겨야 할 것 같다. 이 음기는 비록 서애가 교정하면서 수록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부류로써 미루어 보건대 마땅히 연보의 끝에 두어야 한다.

또한 퇴계선생이 撰한 임고서원제문을 보충하여 넣지 않을 수 없으니 내 생각에는 손순효의 제포은선생효자비각 아래에 수록해야 할 것이다.³²⁾

「圃隱墓碣陰記」는 1517년(중종 12, 丁丑)에 대학생들이 상소하여 정몽주를 文廟에 배향한 뒤에 묘소를 수축하면서 세운 비석의 음기이다. 그 이유는 같은 내용의 글을 모아 두어야 도서의 체재가 바로 잡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도합 7행으로 되어 있어 空張인 연보의 바로 밑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집을 보아도 연보의 마지막 장은 1행 뿐이고 다음 장은 비어 있어서 오운의 생각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황이 지은 「臨臯書院祭文」은 반드시 補入해야 하는데 孫舜孝의 「題圃隱先生孝子碑閣」의 다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위의 생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31) 위의 책, 「附錄第六張 孫舜孝題碑閣辭下 生員鄭瑠跋文 宜在卷末柳溥跋之下 而連書於牧隱諸賢附錄之後 似未安 若謂發明孫公構閣題詠事跡 不可不類附 則又逐行低一字書刻 不使混擬於諸賢之作 此諸家慕錄之 凡例也」.

32) 위의 책, 「附錄第九張圃隱墓碣陰記 似當刻在年譜末端 空張之後 此陰記 雖非西厓校正所錄 以類推之 宜在譜末 且退溪先生所撰 臨臯書院祭文 不可不補入 愚意宜錄於孫公碑閣辭下」.

이러한 오운의 안목으로 볼 때 『圃隱集』의 편집 체제도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다.

임자년의 조경지작이 반대로 병인행록의 뒤에 있는데 대개 조천록의 서차는 자못 거꾸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모을 때 자세하게 하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³³⁾

정몽주의 연보에 의하면 書狀官으로 북경에 간 것이 1372년(恭愍 21, 壬子) 3월이다. 그런데 이 때 지은 詩篇이 2년 뒤에 지은 『丙寅行錄』의 뒤에 수록된 것은 아무래도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처음 문집의 편차를 정리한 정종성이 주도 면밀하게 처리하지 못한 까닭이지만, 오운의 입장에서 볼 때 아쉽지 않을 수 없었다.

4.2.2 誤字의 校訂

오운은 『圃隱集』의 교정에 임하면서 경험과 안목을 최대한 살리면서 치밀하게 교정하였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방증 기록을 참고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하였다. 정몽주의 초상이 실린 것은 永川舊刻本이 처음이다. 그런데 정몽주의 나이가 잘못 되었다고 오운이 지적하였다.

화상아래의 기록에 이르기를 모습을 그린 곳이 선생 52세 때라고 하였는데, 연보를 살펴보면 선생은 기사년에 53세였으니 지금 52세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2자가 잘못된 것 같다.³⁴⁾

정몽주의 초상이 그려진 것은 1380년(恭讓 1, 己巳)이다. 恭讓王의 즉위 원년에 정몽주의 공로를 높이 여겨 초상을 그리게 했다. 뒤에 자손들이 模寫하여

33) 위의 책, ‘壬子朝京之作 反居丙寅行錄之後 大槩朝天錄序次 頗倒錯 恨當初哀集之未盡詳也’.

34) 위의 책, ‘畫像下識云 圖形時先生年五十有二云 按年譜先生於己巳年五十三 而今云五十二 二字恐誤’.

임고서원과 송양서원에 봉안하였는데 임고서원에서 문집을 출간하면서 실게 되었다.³⁵⁾ 그러나 나이가 52세로 되어 있으므로 오운이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오운은 철저한 교정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았다. 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圃隱集」卷1에 있는 「夢」詩의 교정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詩를 소개한다.

世人多夢寐	세상 사람 꿈 많이 꾸어도
夢破旋成空	꿈 깨면 도리어 헛된 것
自是因思慮	이로써 생각해 보면
何能有感通	어찌 느끼고 통함이 있으리오
殷家得傳說	은나라에서는 傳(傳의 잘못說)을 얻었고
孔氏見周公	공자는 주공을 보았네
此理人如問	이 이치를 남이 묻거든
當求至靜中	마땅히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구하게 하라

오운은 제 5구의 ‘傳’字를 ‘傳’字로 고쳐 바로 잡았다.³⁶⁾ 傳說은 은나라 高宗의 재상이다. 하루는 고종이 꿈에 부열을 보고는 그의 화상을 그려 전국에 수소문한 끝에 傅巖의 계곡에서 그를 찾아내어 재상으로 삼았다. 이 때 부열에게 명한 것이 「尙書」 「說命篇」이다.³⁷⁾ 시의 내용으로 보거나 故事로 볼 때 ‘傳說’이 ‘傳說’의 誤記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예를 더 살펴본다.

悶悶中懷何以寬	우울한 마음 어찌 풀 수 있나
携壺走踏碧溪寒	술병 들고 내달리니 푸른 시내가 서늘하네
論心且莫論時事	마음만 말하고 시대는 말하지 말 것이니
得句眞同得美官	시를 짓는 것이 참으로 좋은 자리 얻음과 같도다
紫洞蒼茫生暮靄	붉은 고을에는 아득히 저녁 구름 피어나고
銀河激灑絕風湍	은하수 출렁대니 여울에 바람 그치네
鵲橋此日佳期迫	까치가 다리 놓는 오늘 아름다운 기약이 다가오니
天上神仙拂玉鞍	하늘의 신선이 王(玉의 잘못)안장의 먼지를 먼다

35) 「圃隱集」, 遺像, ‘按洪武二十二年己巳 恭讓王新卽位 以先生有大勳勞於國家 命立閣圖形 時先生年五十有二也 子孫因藏于家廟 後摹寫奉安于臨臯 崧陽兩書院 今又依摹綉梓 置于年譜之上 使學者開卷肅然 有以瞻仰而起慕云 萬曆丁未三月日識’.

36) 「竹牖先生文集」卷4, 「圃隱先生文集誤字校正」, ‘一卷第七張後面 夢詩 傳字誤作傳 改正’.

37) 「十三經注疏尙書正義」卷10, 「高宗夢得說 使百工營求諸野 得諸傅巖 作說命三篇’.

위에 인용된 시는 「圃隱集」卷2에 수록되어 있는 「次牧隱先生詩韻七夕遊安和寺」 3수 중의 세 번째 시이다. 의미상 ‘왕의 안장(王鞍)’보다는 ‘옥으로 된 안장(玉鞍)’이 맞다. 오운은 이처럼 글자 하나까지 교정하여 바로 잡았으며, 심지어는 글자를 새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생긴 점 하나까지 삭제하는 세밀함을 보였다.³⁸⁾

오운의 교정은 시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연보의 註까지도 의심스러운 것은 세밀히 살펴 교정하였다. 오운은 정몽주가 26세 되던 해 3월에 藝文館檢閱을 拜受한³⁹⁾ 사실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다음의 두 기록을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이제 행장을 살펴보니 선생이 임인년에 예문 김열로 뽑혔다. …(중략)… 또 고려사를 살펴보니 공민왕이 신축년 11월에 홍건적을 피해 남쪽으로 와서 12월에 복주에 이르렀다. 그 후 공이 안동서기로 부임하는 이수재를 보내며 지은 시에 …(중략)… 라 하였다. 그런즉 임금이 복주에 행차하였을 때 공은 이미 한림으로 호종하였다. 이듬 해 임인년 2월에 복주를 떠나 상주로 옮겼는데 3월이라고 말한 것이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 판본과 행장이 다 같고, 달리 살펴 볼 것이 없으므로 옛 것을 이어 고치지 않는다.⁴⁰⁾

㉡ 선생의 문집을 살펴보니 선생의 해산성기에 이르기를 지난 해 선왕이 남쪽으로 순행하다가 상주에 이르렀는데 내가 그 때에 불러 들어가 한림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선생이 김열을 배수한 것이 임인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지금 (유성룡이) 교정한 分註에는 힘써 이수재를 보내며 지은 시를 인용하여 (공민)왕이 복주에 행차하였을 때 이미 한림을 배수하였다고 의심하였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선생이 (이수재를 보내며 지은 시에) …(중략)… 라 한 것은 우연히 떠나는 사람에게 시를 주면서 남쪽에 순행하던 일을 추억하면서 회포를 읊은 것이지 반드시 복주에 있을 때 이미 시종관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⁴¹⁾

38) 「竹牖先生文集」卷4, 「圃隱先生文集誤字校正」, 「第十七張後面 宿蓋州詩傳字點削去」.

39) 「圃隱集」, 「年譜攷異」, 26歲 條, 「先生二十六歲 三月 拜藝文檢閱」.

40) 위의 책, 같은 곳, 分註, 「今按行狀 先生於壬寅 選補藝文檢閱 …(中略)… 又按高麗史 恭愍於辛丑十一月 避紅巾南奔 十二月至福州 其後公送李秀才赴安東書記詩云 …(中略)… 然則幸福時 公以翰林扈從也 明年壬寅二月 王發福州 移蹕尙州 而云三月拜檢閱 未詳 然諸本及行狀皆同 而無他考據 故仍舊未改」.

41) 「竹牖先生文集」卷4, 「圃隱先生文集誤字校正」, 「按先生集 先生海山城記云 昔先王南巡 次于尙 余時召入爲翰林 則先生拜檢閱 在壬寅 駐尙之除者 明矣 今校正分註 力引送李

㉠은 유성룡의 교정본에 실려 있는 기록이고, ㉡은 오운의 견해이다. 문제의 핵심은 1362년(恭愍 11, 壬寅) 3월에 정몽주가 藝文檢閱의 직책에 임명되었느냐는 것이다. 유성룡은 행장과 고려사를 인용하여 전 해(1361)에 이미 한림이 되었고 이 때 검열이 되었다고 하면서, 3월에 검열이 된 것은 자세하지 않으나 여러 판본의 기술이 일치하고 다른 참고자료가 없으므로 옛 기록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운의 안목은 이를 범상히 지나치지 않았다. 오운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정몽주가 지은 「海山城記」이다. 정몽주가 이 글을 지은 것은 1376년(禡王 2, 丙辰)인데 당시 彦陽의 謫所에 있었다. 이 글의 冒頭에 위의 인용에서 한 말이 있다. 이것은 유성룡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정몽주가 직접 술회한 것이니 분명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高麗史」를 확인해 보아도 1361년(恭愍 10, 辛丑) 11월에 福州(지금의 安東)에 피난 온 공민왕이 이듬 해 2월 尙州로 옮긴 것은 분명하다.⁴²⁾ 따라서 3월에 정몽주를 불러 藝文館 檢閱에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2.3 교정의 특징

오운은 치밀한 자세로 교정에 임했지만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개진하지는 않았다. 그는 임고서원의 선비들과 협의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다. 오운은 이황의 제문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러 선비들과 의논하여 정하겠다고 하였다.⁴³⁾ 그리고 오운은 합리적인 인물이었다. 黃汝一의 「碑閣重修記」의 경우에서 오운의 생각을 알 수 있다. 황여일이 지은 「碑閣重修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일부 선비들이 문집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자, 오운이 그가 영천군수로 있으면서 간행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사실과 일의 시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秀才詩 疑王幸福時 已拜翰林者 恐未然 先生所云 也 忝行宮侍從臣者 偶於贈行 追感南巡時事而詠懷 非必謂在福時 已作侍從官也’.

42) 「高麗史」 39卷, 12月 壬辰 條와 40卷 2月 癸卯 條 참조.

43) 「竹牖先生文集」 卷4, 「圃隱先生文集誤字校正」, 「與諸生議定」.

삭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⁴⁴⁾

또한 오운이 교정한 내용이 곧바로 수정되어 출간되는 것이 아니어서 後日에 있을 간행을 대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본문의 글자와 달리 小字雙行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본다.

㉠ 또한 음기와 제문은 추가로 새길 때 추가로 새기는 뜻을 서술하여 그 아래 分註로 삼는 것이 가할 것이다.⁴⁵⁾

㉡ 이 논의는 긴요한 것 같으니 당연히 分註에 첨가하여 보충해야 한다. 그런데 판에 빈 곳이 없으니 마땅히 보관하여 뒷날을 기다린다.⁴⁶⁾

㉢은 「圃隱墓碣陰記」와 이황이 지은 「臨臯書院祭文」에 대하여 말한 다음 보충한 것이고, ㉣은 정몽주가 檢閱을 배수한 당시의 사정을 살핀 뒤 보충한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오운은 「圃隱集」을 교정함에 있어서 확실한 주관을 갖고 편찬의 순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 내용의 교정에 있어서는 탁월한 안목을 바탕으로 방증자료를 원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였고, 치밀히 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하였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자세를 갖고 있던 인물로 도서의 전반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하나 첨기해야 할 사항은 오운의 「圃隱集」 교정 내용이 후대의 「圃隱集」에 완전히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운이 교정한 시의 내용은 반영되었지만, 서문의 순서 배열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圃隱集」은 지역적으로 개성과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중간되었으며, 1903년에 중간된 옥산재본 이후로는 후손들을 중심으로 중간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간행된 모든 판본을 수집하여 완전히 보완한 「圃隱集」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오운의 노력에 견주어 볼 때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4) 위의 책, ‘且黃汝一碑閣重修記 士之見者 皆不滿而非笑之 至欲削去 然身宰本郡 主管重刊重修事 仍記始末 削去則不可’.

45) 위의 책, ‘且陰記及祭文 追刻時 敘追刻之意 分註於其下 可也’.

46) 위의 책, ‘此識論似緊 當宜分註添補 而板無空處 宜藏待後’.

5. 結 言

본고는 竹牖 吳澧(1540-1617)의 편찬서를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착안한 것으로 그가 주도한 「圃隱集」의 교정 사항을 고찰함으로써, 오운이 도서의 저술 및 간행, 그리고 편집과 교정 등 다방면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인물임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지금까지의 고찰 내용을 요약, 제시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 오운이 「圃隱集」을 교정한 것은 1614년(당년 75)이었고, 교정의 대상으로 삼은 판본은 永川舊刻本이다. 이 판본은 1584년에 宣祖가 西厓 柳成龍에게 舊本을 교정하여 改撰本을 만들게 한 것으로, 익년 7월에 완성되어 永川의 臨臯書院에서 간행한 것이다. 오운은 유성룡과의 친분과 자신의 거주지인 臨臯書院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교정에 착수하였다.

2. 「圃隱集」은 1439년에 초간된 뒤에 지금까지 12차례의 重刊을 거쳤다. 이렇게 중간을 거듭한 이유는 정몽주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忠節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의 문집을 널리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오운의 교정 내용은 편집 순서의 수정을 주장한 것과 오자의 교정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오운은 문집의 체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序文의 경우 卞季良, 河崙, 朴信, 權探, 盧守愼의 순서로 수록해야 한다고 단언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문을 쓴 사람의 나이와 서문을 쓴 年次를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附錄과 跋文의 경우에는 撰者의 위상과 역량을 감안하여 배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4. 오자의 교정에 있어서는 탁월한 안목을 바탕으로 세밀히 살펴 오류를 수정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字體가 유사한 한자 중 잘못 쓴 것을 바로잡는 한편 점 하나라도 틀린 것은 고쳐 놓았다.

5. 오운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인물로 중요한 사항은 임고서원의 동료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의혹이 생기면 방증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의문점을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증명했다. 그중에서도 정몽주의 나이 26세에 있었던 藝文館 檢閱에 임명되는 과정을 추정하는 모습은 뛰어난 교정가로서의 오운의 위상을 증명하는 실례이다.

6. 오운이 교정한 시의 내용은 후대의 「圃隱集」에 반영되었지만, 서문의 순서 배열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圃隱集」은 지역적으로 개성과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중간되었으며, 1903년에 중간된 옥산재본 이후로는 후손들을 중심으로 중간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간행된 모든 판본을 수집하여 완전히 보완한 「圃隱集」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오운의 노력에 견주어 볼 때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太宗實錄」.

「世宗實錄」.

「高麗史」.

「竹牖先生文集」.

圃隱集. 1439. 규장각 소장본

圃隱集. 1533. 규장각 소장. 고대소장본.

圃隱集. 1575. 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圃隱集. 1607. 11行18字. 연세대 소장. 고려대 소장본.

圃隱集. 1607. 10行20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圃隱集. 160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圃隱集. 1659. 규장각 소장본

圃隱集. 1677. 규장각 소장본

圃隱集. 1769. 규장각 소장본. 충남대 소장본.

김순희. “吳滂의 「東史纂要」의 書誌學的 연구.”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12).

김순희. “吳滂과 「威州志」.” 『書誌學研究』 제29집(2004. 12).

КСІ